

# “IOC 위원장에 판정 관련 면담 요청”

윤홍근 베이징동계올림픽 선수단장, “CAS 제소할 것”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 “명백한 오심”

대한체육회가 쇼트트랙 판정 논란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직접 IOC의 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도 제소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밟기로 했다.

윤홍근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은 8일 메인 미디어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과 IOC에 항의 서한을 발송했다. IOC 위원인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유승민 선수위원을 통해 바흐 위원장과의 면담도 요청한 상태”이라고 말했다.

한국 쇼트트랙은 전날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나온 석연철은 판정의 피해를 봤다. 황대현과 이준서는 각각 1조 1위와 2조 2위로 레이스를 마쳤지만 실제 처분을 받아 결승행에 실패했다.

특히 황대현은 기술을 앞세워 몸싸움을 최소화하며 깔끔한 1위를 차지한 듯 했으나 심판진의 판정은 달랐다. 심판진은 황대현에게 레인 변경 반칙을 지적했다.

한국 선수가 실격으로 빠진 자리는 홈 팀 중국 선수들이 대신했다. 중국은 결승전에서도 판정 반복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윤 단장은 “5000만 국민의 오랜 꿈과 희망, 영원을 지켜내지 못했고 4년 여 피땀 흘려 가꾼 우리 젊은 선수들의 청춘을 지켜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절차에 맞춰 CAS에 제소하겠다. 다시는 국제 빙상계 및 스포츠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보탰다.

큰 충격에 빠진 선수들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약속했다. 윤 단장은 “선수단에 파견된 심리 상담사가 있다. 황대현 이준서 박정혁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필요하다면 반도록 할 것”이라며 “기자회견 종료 후 선수단장을 포함한 대표들이 선수들을 찾아가 격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단장은 남은 경기 보이콧 및 선수단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윤 단장은 “그 부분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선수들을 열심히 뛰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8일 오전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파판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홍근 선수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판파판정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예정이다.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판단한다”면서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남은 경기가 더 많다. 지난 4년간 피 땀 흘려 준비한 선수들이 최고의 감동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조금만 더 큰 응원과 격려를 갖고 힘을 실어달라”고 청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명백한 오심과 한국의 피해, 중국의 이익으로 요약된다.

남자대표팀은 준결승이 끝난 뒤 황대현과 이준서의 실격을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서를 제출했다. ISU는 판정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ISU 국제심판인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중국 선수가 황대현의 추월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이때 황대현이 히든카드를 한 번 썼다. 흔들려 놓고 안으로 파고드는 작전이었다”면서 “뒤늦은 추월로 접촉이 있었다면 실격을 줄 수 있다. 근데 그 장면에서는 접촉이 전혀 없다. 실격을 안 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준서에 대해서는 “비디오 영상으로 파악한 바로는 중국 선수가 헝가리 선수 왼쪽 엉덩이에 손을 댄고 중심이 흔들려 넘어지는 상황에서 이준서와 충돌했다. 개인적인 생각과 영상 분석 결과로는 헝가리와 중국 선수에게 문제가 있었다”면서 “마찬가지로 실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이점이 없다는 ISU의 공식 발표를 두고는 “충분히 예견했다. 판정은 반복할 수 없다. 앞으로 남은 종목이 많은데 또 이런 불이익이 생길까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더 강력하게 제소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진안중 레슬링부 레슬링 강교 ‘명실상부’

진안중 레슬링부가 또 한번 명실상부한 레슬링 강교의 면모를 이어나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부터 8일까지 합평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국가대표 1차 선발전 및 아시아주니어·카넷 선수권 파견 선발대회에서 진안중 레슬링부 선수들이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그레코로만형 45kg에 출전한 한우진(진안중 3학년) 선수는 결승에서 가경중학교 송현석 선수를 만나 풀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차지하고, 그레코로만형 51kg에 출전한 진영준(전북체고 1학년, 2021년 진안중 졸업)이 결승에서 경남체고 배승연 선수를 꺾으며 금의환환을 이어나갔다. 윤광민(진안중 3학년) 선수는 그레코로만형 110kg급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하는 기업을 토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 “왜 이런 결정을 할까”... 베테랑 국제심판도 의아

최용구 ISU 국제심판 “한 번이 넘으면 오심 아닌 고의”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국제심판인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은 전날 남자 1000m에서 판정 논란을 야기한 피터 위스(영국)를 두고 이해하기 힘든 일을 벌이는 것 같다고 고개를 가로 저었다.

황대현(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는 판파 판정의 희생양이 됐다. 두 선수는 준결승을 각각 1위(1조)와 2위(2조)로 통과하면서 실격 처리돼 결승 진출권을 놓쳤다.

최 단장은 “직선 코스에서 중국 선수가 지속적으로 추월을 방해했다. 그래서 황대현이 히든카드를 쓴 것 같다. 흔들려 놓고 안으로 파고드는 작전이었는데 코너 입구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무리없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황대현의 레인 변경 시도가 늦은 것을 떠나 기본적으로 충돌이 없으면 반칙이 아니라는 것이 최 단장의 설명이다.

이준서를 두고는 “이준서가 직선에서 자기 주로를 안 타고 안으로 급격히 들어왔기에 실격이라고 했으나 영상을 파악한 바로는 중국 선수가 헝가리 선수 왼쪽 엉덩이에 손을 댄다. 이때 중심이 흔들려 넘어지려는 상

황에서 이준서와 충돌했다. 내 개인적인 생각과 영상 분석 결과로는 헝가리와 중국 선수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근 10년 간 기술의 발달은 스포츠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선수들의 모든 동작을 세세히 잡아낼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은 종목의 구분 없이 공정성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위원은 “최종 결정은 가운데 있는 심판장이 한다. 양쪽에 서 있는 어시스턴트들은 조언을 해준다. 여러분들이 못 보는 자리에 작은 방이 있다. 방송국에 버금가는 장비가 있다. 8개 이상 카메라 있어서 선수들 손발 동작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쇼트트랙은 대회를 치를 때마다 판정 논란에 휘말린다.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맞지만 판정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이면서 주관적인 기준이 크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쇼트트랙에서 영상 판독은 그저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이다. 결론은 늘 심판장 1명이 내린다.

“오심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ISU는 1~2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고 규정을 바꾼다. 작년부터는 2주에 한 번씩 화상 회의와 교

육을 한다”는 최 위원은 “오심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결정권은 한 명에게 있다. 최종 결정권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 위원은 “간혹 심판도 사람이라는 말을 한다. 오심은 한 번으로 족하다. 한 번이 넘으면 그건 오심이 아니다. 고의적”이라고 덧붙였다.

황대현과 이준서를 모조리 떨어뜨린 위스 심판을 논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위스 심판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심판장을 맡는 등 국제적으로 높은 명성을 지니고 있다.

최 위원은 “지금 심판장 맡으신 분이 ISU에서도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른 명 정도의 국제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톱랭크”이라며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간다”고 씩씩했다.

한국 선수단의 기자회견에 앞서 ISU는 논평을 통해 한국과 헝가리 제기한 판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최 위원은 “(추후에도 오심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순간 심판진의 모든 것이 밑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정말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유감’ 정도는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제8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 Paper Road!

전주페이퍼가 종이의 세계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종이시장의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종합제지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

